
산업별 대중 수출의존도 변화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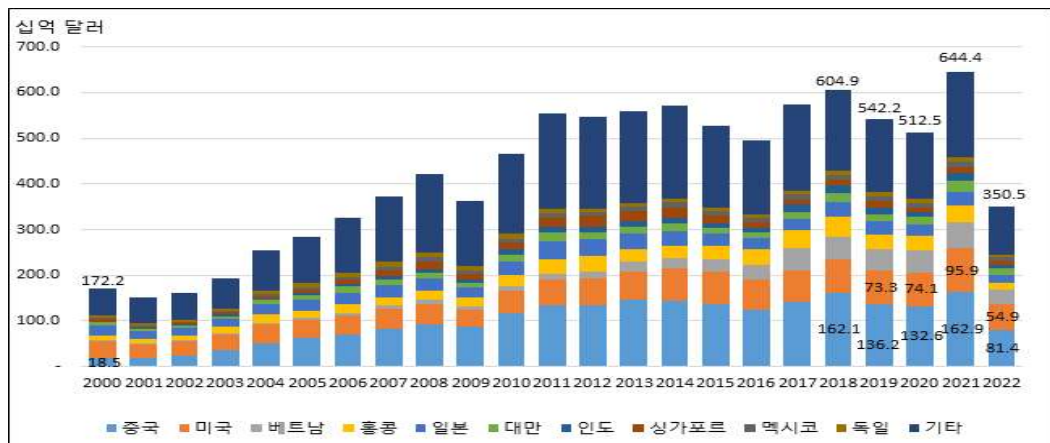
2022. 8

I. 한·중 경제교류 추이 분석

1. 한국의 교역규모와 중국의 비중

- 한국은 중국과 1992년 수교한 이래 양국 간 교역이 크게 증가하면서 뚜렷한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
 - 한국의 경제 규모는 1992년 3,550억 달러에서 2000년 5,725억 달러, 2020년 1조 6,508억 달러 규모로 성장
 - 한국의 수출입 규모는 2000년 3,330억 달러에서 2021년 1조 2,590억 달러로 급성장
- 한국의 대중 수출 규모는 2000년 185억 달러로 전체 수출 비중의 10.7%에서 2021년 1,629억 달러로 수출 비중이 25.3%로 급등
 - 중국은 한국의 최대수출국이며, 2013년 26.1%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줄곧 25% 수준을 기록 중
 - 동기간 한국의 전체 수출은 1,723억 달러에서 6,444억 달러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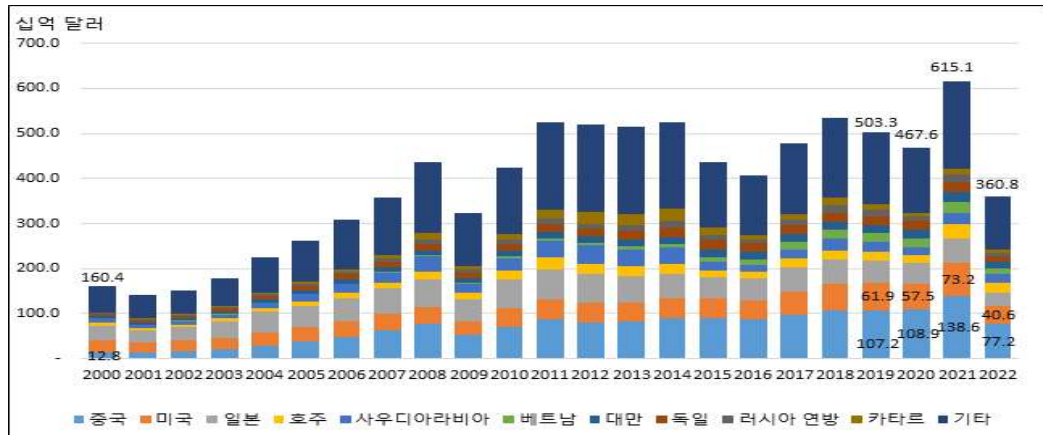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의 수출 추이



- 출처 : 관세청(검색일 : 2022.8.8.)

- 한국의 대중 수입 규모는 2000년 128억 달러로 전체 수입 비중의 8.0%에서 2021년 1,386억 달러로 수입 비중이 22.5%로 급등
 - 중국은 한국의 수입 대상국 중 1위이며, 2020년 23.3%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 이후 지속해서 22%대를 기록 중
 - 동기간 한국의 수입은 2000년 1,605억 달러 수준에서 2021년 6,151억 달러로 성장

<그림 2> 한국의 수입 추이



- 출처 : 관세청(검색일 : 2022.8.8.)

2. 교역 대상국별 교역 비중의 변화

- 교역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대만 순
 - 수출 규모는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순으로 크지만 수입 규모는 중국, 미국,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순
 - 상위 5대 교역국(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과의 교역 집중도는 2021년 54.3%를 기록하였고, 상위 3대 교역국의 집중도는 44.1%를 기록
- 교역 상위 5개국과의 교역규모를 보면, 최근 중국과의 무역수지 악화 및 미국과의 무역수지 개선이 뚜렷
 - 대중 무역수지는 2018년 556억 달러 흑자에서 2021년 243억 달러, 2022년 상반기까지 42억 달러 정도로 흑자 규모 급감 (2022년 2분기 적자)

<표 1>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별 교역 추이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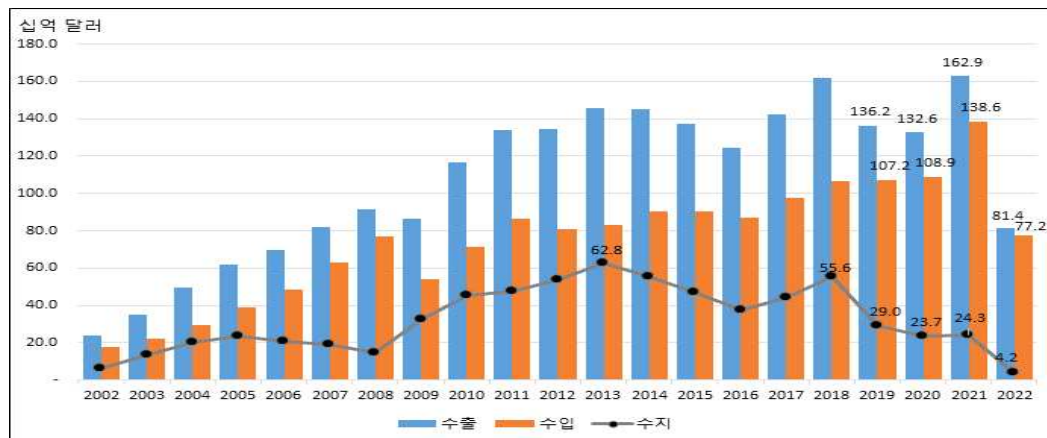
		교역	2018	2019	2020	2021	2022(6월)
주요 교역국	중국	규모	268.6	243.4	241.5	301.5	158.6
		수지	55.6	29.0	23.7	24.3	4.2
	미국	규모	131.6	135.2	131.6	169.1	95.6
		수지	13.9	11.5	16.6	22.7	14.3
	일본	규모	85.1	76.0	71.1	84.7	44.2
		수지	-24.1	-19.2	-20.9	-24.6	-12.2
	베트남	규모	68.3	69.2	69.1	80.7	45.4
		수지	29.0	27.1	27.9	32.8	18.4
	대만	규모	37.5	31.4	34.3	47.8	28.3
		수지	4.0	-0.1	1.4	0.8	0.5
전체		규모	1,140.1	1,045.6	980.1	1,259.5	711.3
		수지	69.7	38.9	44.9	29.3	-10.4

- 출처 : 관세청(검색일 : 2022.8.8.)

3. 한·중 교역규모 추이

- 2021년 대중 교역규모는 약 3,015억 달러로 전체 교역규모의 23.9% 차지
 -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전체교역 규모 대비 대중 교역규모는 22.3~24.6% 수준을 기록하며 절대적 위상
- 대중 교역의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교역규모는 성장하는 반면, 수지는 악화하고 있는 상황
 - 대중 수출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대중 수입 규모는 2021년과 2022년 상반기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중 수입 규모의 상대적 증가에 따라 단기적 무역수지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대중 수입에 비하여 대중 수출의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낮은 것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 조치의 영향으로 2분기 경제성장이 하락하면서 우리의 수출 수요가 감소한 것도 하나의 이유

<그림 3> 한국의 대중 교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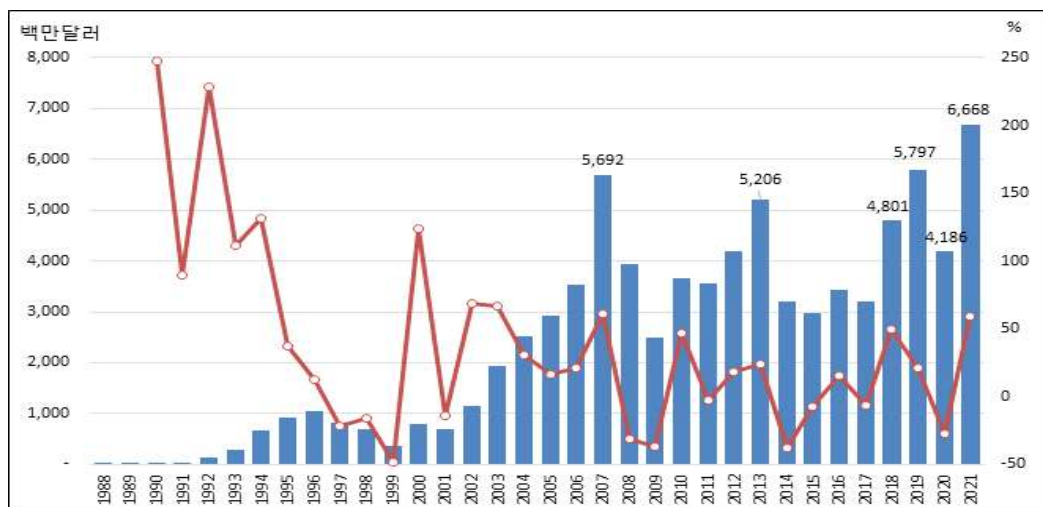


- 출처 : 관세청(검색일 : 202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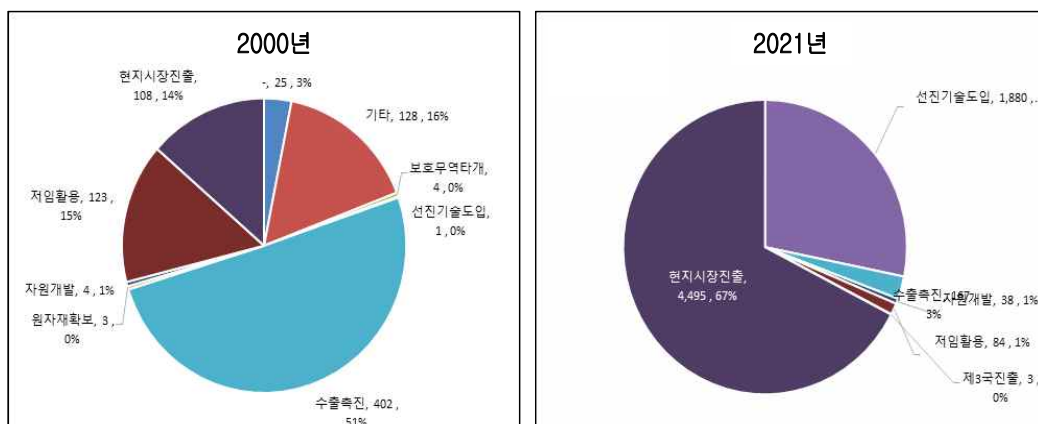
4.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 추이

-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증가는 한·중 교역 확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진출업종과 진출목적에 따라 교역구조도 결정
 - 2021년까지의 누적 규모로는 816억 달러 규모가 직접투자 되었으며, 제조업으로의 직접투자가 전체의 80.7%를 차지
 - 지역으로 보면 장쑤성(28%), 산둥성(15%), 베이징(11%), 광둥성(8%) 순으로 대부분 동부 연안 지역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투자목적은 2000년 수출 촉진(51%)이 주였으나, 2021년 현지 시장진출(67%)로 바뀌면서 생산입지보다는 현지 시장 공략으로 전환

- 대중 직접투자는 아시아 금융위기, 베이징올림픽, 다오위다오 분쟁을 계기로 큰 변화
 - 2017년 THAAD 사태로 대중국 직접투자가 주춤하였다가 2018년 급등,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하였다가 2021년 급등하는 등 지연되었던 투자가 추진됨에 따른 반등을 경험
 - 2018년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과 패권 경쟁 등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대중 직접투자 변화는 아직 뚜렷한 인과관계 불투명
 -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한계기업의 퇴출과 2017년 THAAD 사태 이후 도소매업, 가전(휴대전화기 포함), 디스플레이(LCD) 등의 퇴출이 이어지고 있어 구조 조정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



〈그림 5〉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 목적 변화



5. 중국의 대한국 경제교류

-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불리며 교역규모가 빠르게 성장 중
 - 2015년 약 3조 9,590억 달러 수준의 교역 규모에서 2021년 52.9% 성장한 약 6조 510억 달러 수준을 기록
-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2015년 2,760억 달러에서 31.3%가 증가하여 2021년 3,620억 달러 수준을 기록
 - 동기간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73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
 -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한국과 일본으로부터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의 적자 규모는 220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감소
- 중국에 있어서 한국과의 교역규모는 2015년 7.0%에서 2021년 다소 감소한 6.0% 수준
 - 2021년 기준으로 대한국 수입비중은 7.9%, 대한국 수출은 4.4%

<표 2> 중국의 교역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총액			대 미국			대 한국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2015년	2,277	1,682	595	410	149	261	101	175	- 73
비중				18.0	8.8	43.9	4.5	10.4	
2016년	2,097	1,587	510	385	134	251	94	159	- 65
비중				18.4	8.5	49.2	4.5	10.0	
2017년	2,263	1,841	423	430	154	276	103	178	- 75
비중				19.0	8.4	65.3	4.5	9.6	
2018년	2,487	2,136	352	478	155	323	109	205	- 96
비중				19.2	7.3	91.9	4.4	9.6	
2019년	2,498	2,077	422	419	123	296	111	174	- 63
비중				16.8	5.9	70.2	4.4	8.4	
2020년	2,591	2,056	535	452	135	317	113	173	- 60
비중				17.4	6.6	59.2	4.3	8.4	
2021년	3,364	2,688	676	576	180	397	149	213	- 65
비중				17.1	6.7	58.6	4.4	7.9	
2022년(6월)	1,732	1,347	385	293	91	201	81	103	- 22
비중				16.9	6.8	52.2	4.7	7.6	

- 출처: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검색일: 2022.8.8.)

- 중국 상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으로의 해외자본투자는 1992년 110억 달러 수준에서 2020년 1,493억 달러로 급증
 - 중국으로의 자본투자 중 홍콩 자본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조세 회피처를 제외하면 싱가포르와 한국, 일본 등의 순
- 중국 내 한국의 직접투자 규모는 2015년 40억 달러 수준에서 2020년 36억 달러 수준으로 소폭 감소
 - 2020년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대중국 직접투자가 지연된 상황
 - 중국 내 한국의 직접투자의 비중은 2.5~3.0% 수준이지만 화교 자본을 제외한 순수 외국 투자 중 사실상 일본과 함께 가장 큰 수준
-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중국 산업경제에 크게 기여
 - 중국 상무부는 2019년 발표한 <跨国公司投资中国40年>에서 14개 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사례 중 CJ, 현대자동차, 삼성반도체의 투자를 우수 사례로 언급
 - 1994년 CJ청다오식품유한공사를 시작으로 현지화 전략으로 조용한 기적을 이루었고, 2002년 후발주자로 현대자동차가 베이징현대를 설립하면서 업력을 키웠으며, 삼성은 2018년까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349억 달러를 투자하여 중국경제의 도약에 기여하였음을 서술

<표 3> 중국 내 외국자본 직접투자 상위 10개 국가

단위: 십억 달러, %

2015년			2020년		
투자국	투자 규모	비중	투자국	투자 규모	비중
홍콩	86.4	63.7	홍콩	105.8	70.8
버진아일랜드	7.4	5.5	싱가포르	7.7	5.1
싱가포르	6.9	5.1	버진아일랜드	5.2	3.5
한국	4.0	3.0	한국	3.6	2.4
일본	3.2	2.4	일본	3.4	2.3
미국	2.1	1.5	케이만군도	2.8	1.9
사모아	2.0	1.5	네덜란드	2.6	1.7
독일	1.6	1.2	미국	2.3	1.5
대만	1.5	1.1	마카오	2.2	1.5
케이만군도	1.4	1.1	독일	1.4	0.9

- 출처 : (2015년) 中国外资统计 2016, (2020년) 中国外资统计公报2021

II. 한국 산업의 대중의존도 변화

1. 산업별 대중 수출 비중 추이

- 우리 산업의 대중 수출 비중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했으며, 특히 고위기술산업군¹⁾의 대중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
 - 고위기술산업군의 대중 수출 비중은 2000년 3.87%에서 2021년 34.06%로 30%p 넘게 증가
 - 반면 저위기술산업군²⁾의 대중 수출 비중은 2000년 15.62%에서 2021년 15.76%로 사실상 정체
 - 업종별로 살펴보면, 동기간 대중 수출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은 반도체(3.2% → 39.7%, △36.5%p), 정밀기기(7.5% → 42.5%, △35%p), 디스플레이(2.0% → 35.2%, △33.2%p) 순

<표 4> 對中 수출 비중 증가폭 상위 10개 업종

순위	업종	2000년(%)	2021년(%)	증가폭(%p)
1	반도체	3.2	39.7	△36.5
2	정밀기기	7.5	42.5	△35.0
3	디스플레이	2.0	35.2	△33.2
4	세라믹	5.6	32.3	△26.7
6	시멘트	1.3	25.5	△24.2
7	의류	3.2	25.3	△22.1
8	주조	8.6	30.3	△21.7
9	정밀화학	20.5	40.9	△20.4
10	유리	19.3	39.3	△20.0

- 출처 : (2000년) UN comtrade, (2021년) 관세청 자료 활용하여 자체 정리

- 2000년 대중 수출 비중 상위 10개 업종은 주로 소비재·저위기술산업이었으나, 2021년에는 고위기술산업군 위주로 재편
 - 2000년 대중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목재(42.3%), 가죽·신발(38.8%), 석유화학(33.4%) 순
 - 반면 2021년 對中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정밀기기(42.5%), 정밀화학(40.9%), 반도체(39.7%) 순

1) 의약,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통신기기, 가전, 정밀기기, 전지, 항공
 2) 음식료, 담배, 섬유, 의류, 가죽·신발, 목재, 제지, 인쇄, 가구, 기타제조업

<표 5> 對中 수출 비중 증가폭 상위 10개 업종

순위	2000년		2021년	
	업종	對中 수출 비중(%)	업종	對中 수출 비중(%)
1	목재	42.3	정밀기기	42.5
2	가죽·신발	38.8	정밀화학	40.9
3	석유화학	33.4	반도체	39.7
4	기타 전자부품	27.2	유리	39.3
5	정밀화학	20.5	석유화학	38.9
6	제지	20.3	디스플레이	35.2
7	특수목적기계	20.2	세라믹	32.3
8	석유정제	19.8	기타 전자부품	30.6
9	유리	19.3	주조	30.3
10	철강	18.7	특수목적기계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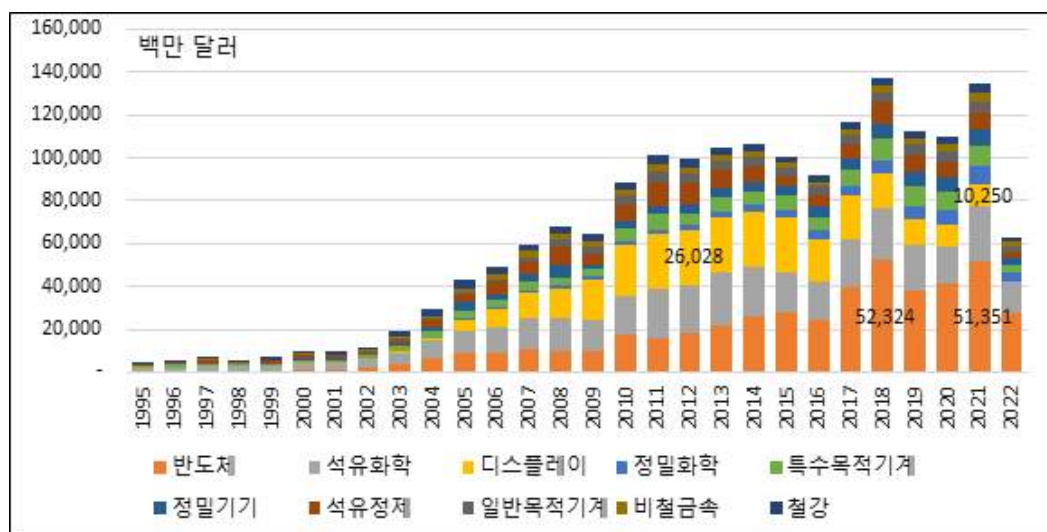
- 출처 : (2000년) UN comtrade, (2021년) 관세청 자료 활용하여 자체 정리

2. 대중 제조업 수출구조 변화

1) 업종별 수출구조의 변화

- 대중 주요 수출 업종의 집중 현상으로 위험요인 상승
 - 상위 10대 업종의 비중을 보면 2000년 제조업의 대중 수출 총액의 80%였으나 2021년 1,613억 달러 중 약 83%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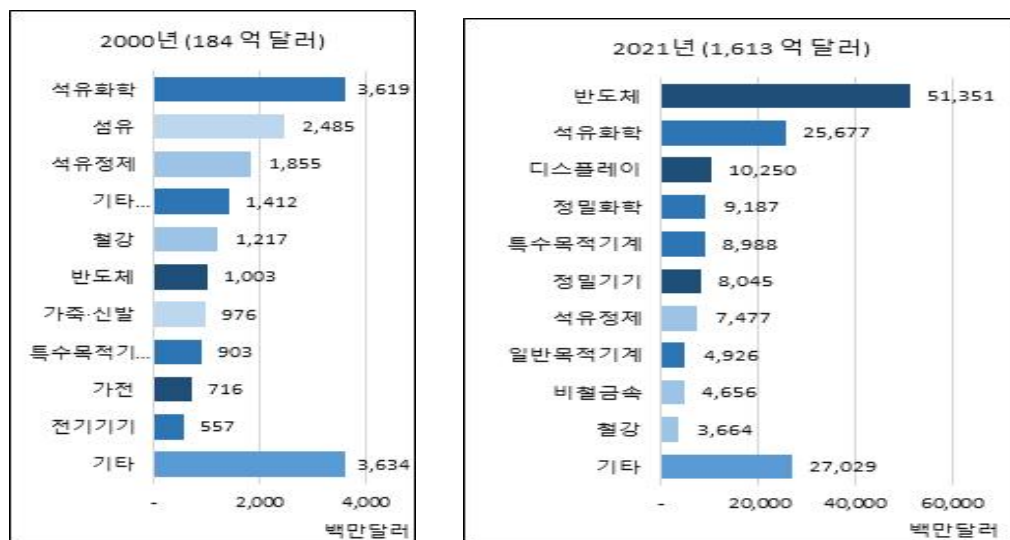
<그림 6> 대중 수출 상위 10대 업종의 추이



- 출처 : 산업연구원

- 고위기술 산업군 업종이 수출을 주도하며 지나치게 집중되어 외부 변화에 취약한 구조 노출
 - 전체 대중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 첨단 산업 기술 및 공급망정책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
- 중간재 성격의 업종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소비재 성격의 업종은 하락
 - 석유화학은 대중 수출이 안정적으로 지속하여 증가하는 반면, 최근 LCD 사업 부문 철수의 영향으로 디스플레이의 수출 비중 급락
 - 자동차와 가전(휴대전화기 포함)은 우리 기업의 대중 직접투자를 통한 현지 생산으로 전기기기, 통신기기, 기타 전자부품 등 부품 형태로 교역
- 중국 기업의 경쟁력 상승에 따른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중국의 국산 대체 확산은 장기적 도전요인
 - THAAD 사태, 미·중 갈등 사태 등으로 중국 수요자의 국산 선호 현상은 중국 기업의 경쟁력 상승으로 인하여 일시적이 아닌 고착화 양상
 - 중국 기업의 경쟁력 상승으로 중국진출 가전·휴대전화기 조립업체 및 자동차부품업체 등이 철수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그림 7> 대중 수출 주요 업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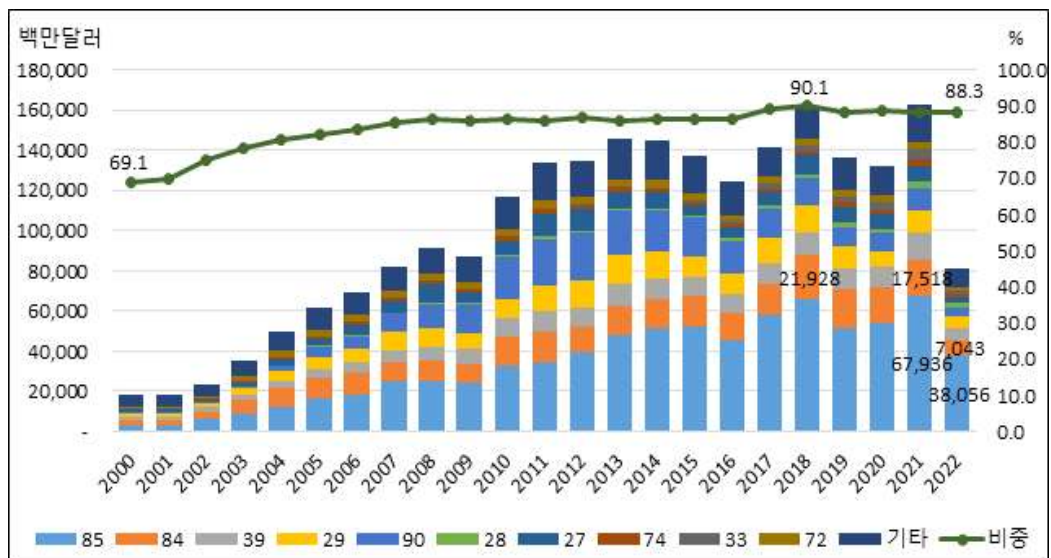
- 출처 : 산업연구원

주. 짙은 색일수록 저위기술군, 중저위기술군, 중고위기술군, 고위기술군

2) 품목별 수출구조의 변화

- 대중 주요 수출 품목을 HS코드 2단위로 살펴보면 상위 10개 품목의 비중이 상승
 -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이 2000년 69.1%에서 2021년 88.3%로 상승하였으며, 2017년은 90.1%를 기록
- 대중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
 -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기기(HS코드 85)의 수출 규모는 2021년 679억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의 41.7%를 차지하였으며, 품목 기준으로 전자 집적회로(8542)가 HS Code 4자리 기준 2021년 465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29%를 차지
 - 보일러 기계류(HS코드 84)의 수출 규모는 2021년 175억 달러로 수출 비중 2위를 차지한 가운데, 반도체 제조용 기기 및 부속품(HS코드 8486)의 수출 규모는 57억 달러를 기록

<그림 8> 대중 수출 상위 10대 품목(HS코드 2단위)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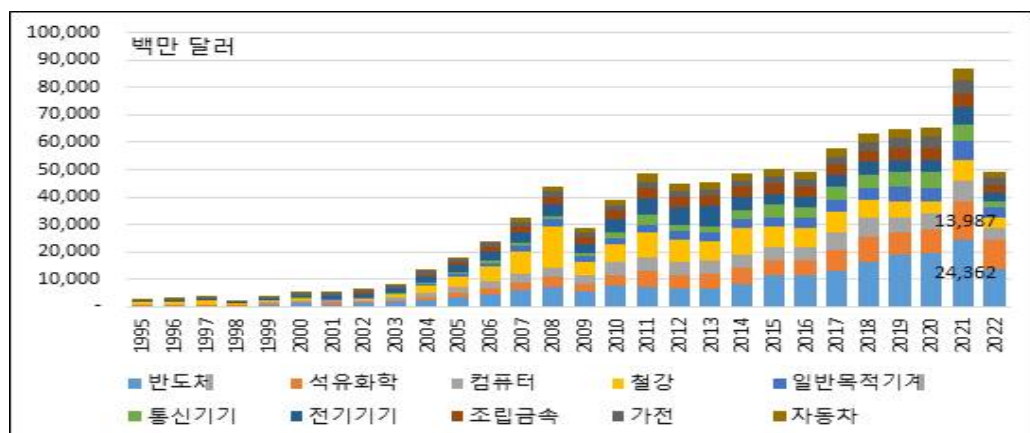
- 출처: 관세청(검색일 : 2022.8.8.)
- 주. 85(반도체 포함 전기기기), 84(보일러 기계류), 39(플라스틱제품), 29(유기화합물), 90(광학의료기기), 28(무기화합물), 27(광물성연료에너지), 74(동제품), 33(화장품), 72(철강)

2. 대중 제조업 수입구조 변화

1) 업종별 수입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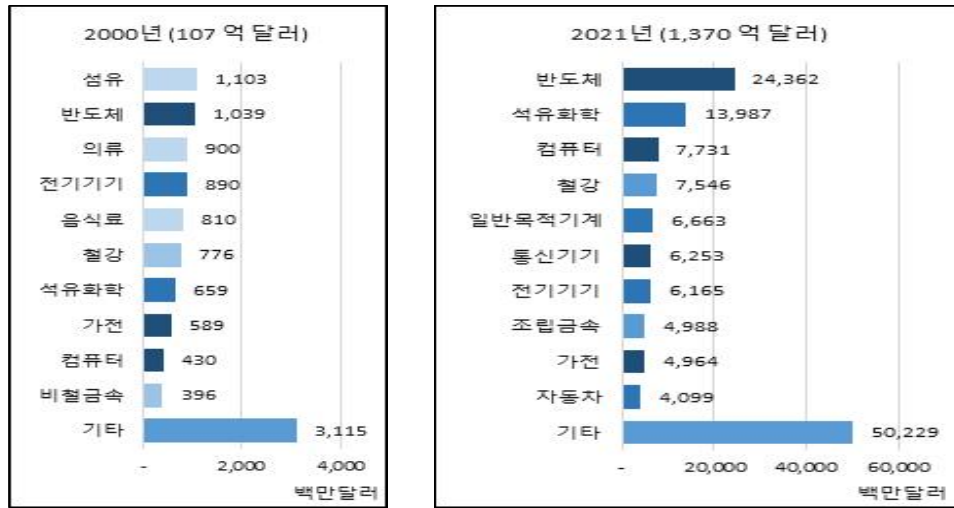
- 대중 주요 수입 업종은 수출업종과 높은 전후방효과
 - 최대 수입 규모를 보이는 반도체와 석유화학은 우리나라와 수직 연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수출 규모도 1위와 2위를 차지
 -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한국에서 중요한 설계를 바탕으로 중국 내 부품 조달을 통하여 현지에서 생산하고, 그 생산품을 중간재 형태로 한국으로 역수출하는 형태의 교역 특성
- 수입 업종도 대부분 고위기술 산업군 업종이 주도
 - 2000년은 중저위기술 산업군인 섬유와 의류 그리고 고위기술 산업군의 반도체산업이 수입을 주도했지만, 2021년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중고위 기술 산업군)에서의 수입 비중이 절대적
- 수입 규모 상위 10대 업종의 비중은 다소 하락한 반면, 상위 2개 업종으로의 집중도는 크게 증가
 - 상위 10대 수입 업종의 제조업 전체 수입 대비 비중은 2000년 약 71%에서 2021년 63%로 낮아졌으나 상위 2대 업종의 수입 비중은 20%에서 28%((1,370억 달러 중 383억 달러)로 증가
 - 반도체의 경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를 한국으로 수입하여 한국 본사에서 최종 판매하는 형태의 교역특징으로 수출과 수입의 규모가 동시에 큰 수치를 기록

<그림 9> 대중 수입 상위 10대 업종의 추이



- 출처 : 산업연구원

<그림 10> 대중 수입 주요 업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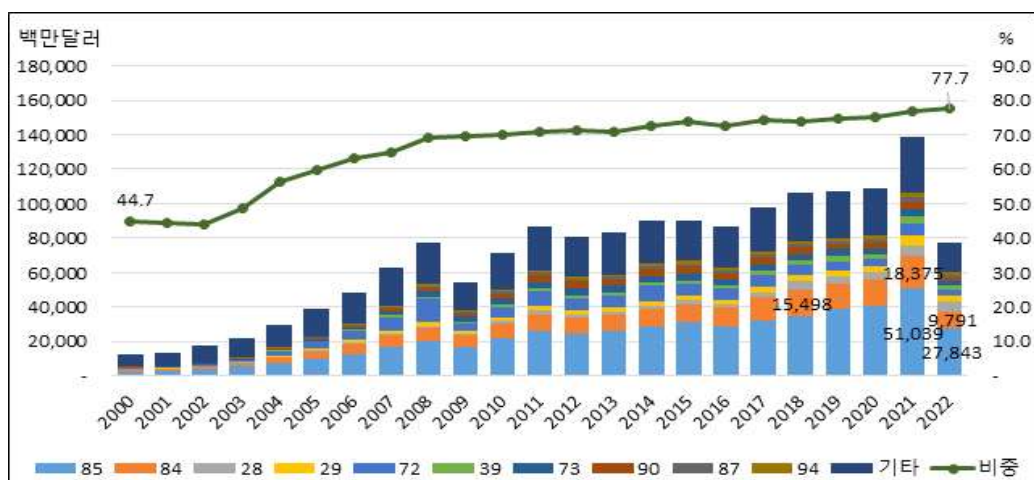


- 출처: 산업연구원

2) 품목별 수입구조의 변화

- 대중 수입에서도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
 - 반도체 포함 전기기기(HS코드 85)의 수입규모는 2021년 510억 달러로 대중 수입의 36.8%를 차지하였으며, 품목 기준 전자 집적회로(8542)가 HS Code 4자리 기준 2021년 207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약 15%를 차지
 - 반도체 제조용 기기 및 부속품(HS코드 8486)의 수입 규모는 57억 달러, 전자수첩 등 기기 부속품(HS코드 8473)은 33억 달러 수준을 기록

<그림 11> 대중 수입 상위 10대 품목(HS코드 2단위)의 추이



- 출처 : 관세청(검색일:2022.8.8.)

주. 85(반도체 포함 전기기기), 84(보일러 기계류), 28(무기화합물), 29(유기화합물), 72(철강), 39(플라스틱제품), 73(철강 제품), 90(광학의료기기), 87(일반차량), 94(가구류)

Ⅲ. 대중국 교역 변화 요인 및 전망

1. 중국 대내 요인과 대외 불안 요인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 조치로 2022년 2분기 주요 일선 도시³⁾의 성장률 급락과 그로 인한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요 감소
 - 중국 내 봉쇄 조치에 따른 우리나라 대중 수출 수요 감소 등으로 대중 무역수지가 악화된 측면이 있으며, 2022년 11월 20차 당대회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고수될 가능성이 큰 상황
 -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산업 경쟁력 상승, 중국 기업의 한국산 수입대체 증가,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 개선의 어려움 등으로 교역구조 악화 예상
 - 반도체 소재, 석유화학 중간제품, 철강재, 배터리 소재 등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의 경우 높은 가성비로 인해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 사실상 수입처 다각화에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
 - 반면, 중국이 수입하는 한국산 중간재의 경우 반도체 관련 품목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입처 대체가 어렵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중 교역의 구조적 취약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
- 글로벌 경기둔화와 국제정치적 요인 등이 대중 교역구조에 부정적 영향
 -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가격이 상승했지만,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 덕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
 - 코로나에 따른 재정확충의 여파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발생과 그에 따른 긴축의 영향으로 원화 절하로 수입 규모는 급증 예상
 - 상대적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중국 내 시설투자 등의 제약 및 CHIP4 동맹 참여 등에 따른 정치적 위험요인까지 고려하면 향후 시장 상황이 매우 불안정

2. 점진적 교역구조의 변화

- 제조업 업종별 대중국 수출 의존도보다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
 - 대중국 교역의존도가 35% 이상인 업종은 2021년 수출 부문에서는 40개 중 5개인 반면, 수입 부문은 18개
 -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21년 정밀기기 42.54%, 반도체 39.68%, 디스플레이 35.23% 등으로 의존도가 높은 편

3) 일선도시(一线城市)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 대중국 수입 비중은 2021년 전지 87.96%, 가구 69.81%, 컴퓨터 65.36%, 통신기기 62.13% 등으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
-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은 무역수지 악화, 반도체산업의 편중 심화, 상호 중간재 교역 중심으로 재편 등으로 변화 중
 - 무역수지 흑자는 2018년 556억 달러의 흑자를 정점으로 지속해서 하락하여 2022년 상반기 42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
 - 반도체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미 2021년에 적자를 기록(2021년 무역흑자 규모는 243억 달러, 반도체 부문 흑자는 270억 달러)
 - 최대 수출입업종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이며 한국과 중국 간 상호 산업연관이 높은 분야로 상호 중간재를 교역
 - 소비자 가전, 휴대전화기, 자동차 등 소비재의 교역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LCD사업 부문의 퇴출로 디스플레이의 교역규모 급감
- 중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따른 교역 품목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과 철강 등으로 점차 축소될 전망
 -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전통제조업 분야에서의 중국산 대체가 확산될 전망

3. 주요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 재점화

-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자원과 주요 원자재가 향후 우리 산업 전반에 위험요인으로 부상할 우려
 - 2021년 하반기 중국의 석탄 생산량 감축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에 차질로 국내 경유 화물자동차의 운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물류대란 발생
-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대중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우려
 - 미국 정부는 CHIP4 동맹 강화를 통하여 첨단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설계, 제조, 장비로 이어지는 공급망에 미국과 일본, 한국, 대만을 주축으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
 -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투자의 제한 등은 반도체의 대중 수출 비중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과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중국 내 생산제품은 범용제품 위주로 재편될 전망

- 전기차용 이차전지(배터리)의 주요 소재 물질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향후 핵심 자원의 전략 자원화로 인한 공급 차질 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
 - 산업연구원 내부자료에 따르면 리튬이온전지의 주요 4대 소재 중 양극 물질, 음극 물질, 분리막, 리튬과 니켈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절대적
 - 최근 주요 광물자원의 가격급등은 물론 중국의 희토그룹⁴⁾ 탄생 등으로 글로벌 독점적 공급망 생성에 따른 위험요인이 상승하였으며 가격 또한 최근 가파르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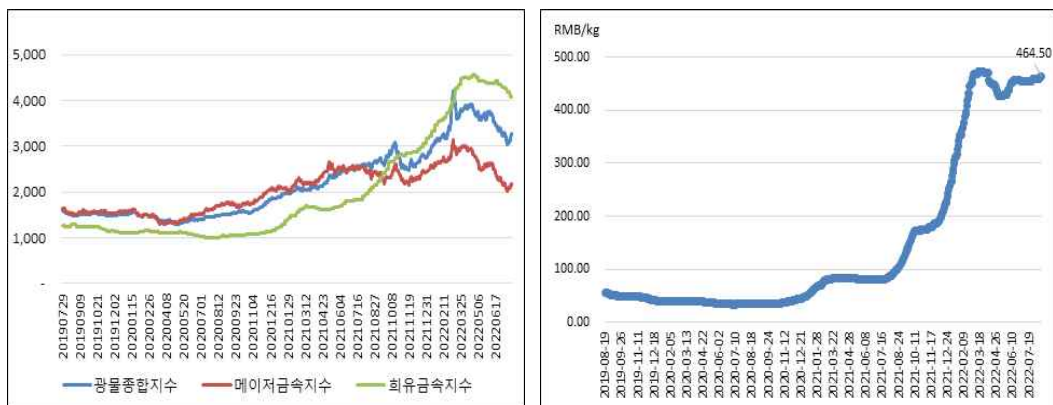
<표 5> 리튬이온전지 주요 소재 부문 대중국 수입의존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2년 6월		
		전체	대중국	비중	전체	대중국	비중
양극	양극전구체				1,088	999	91.8%
	양극활물질	1,023	909	88.9%	1,296	1,250	96.5%
음극	인조흑연	112	98	87.3%	66	60	91.0%
분리막	건식, 습식	405	222	54.8%	149	87	58.5%
리튬	탄산, 수산화	1,048	608	58.0%	2,011	1,270	63.2%
니켈	황산, 수산화	25	1	5.4%	27	2	5.9%

- 출처: 산업연구원 내부자료

<그림 12> 광물종합지수(좌), 탄산리튬가격(우)



- 출처: 한국자원정보서비스(검색일: 2022.8.16.)

4) 2021년 12월 중국 알루미늄, 우광, 간지우희토그룹 등 국유기업 3곳과 연구기관 2곳이 합병해 초탄생한 세계최대규모의 중국희토그룹의 2022년 상반기 순이익이 70% 증가(연합뉴스 2022년 7월 23일, “중국 5대 희토류업체 상반기 순이익 70% 증가”)

IV. 대중 교역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1. 정부차원의 대중 산업협력 전략

-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구조적 변화를 통한 위험요인 관리가 필요
 - 반도체와 이차전지는 물론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부품소재 및 중간재 품목의 수입다각화를 통한 위험분산 필요
 - 이를 위하여 아세안 및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산업분야 소다자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가 절실
 - 중국 정부와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강화가 절실
 - 희토류 등 핵심자원에 대한 해외자원 개발 적극 추진
-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력 확보가 근본적 대응방안
 - 철강, 석유화학, 가전, 휴대폰,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통신장비 순으로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한국을 추월하고 있으며, 반도체조차 안정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에 우려스러운 상황
 -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양자컴퓨팅 등 첨단 분야에서의 중장기 인력양성 계획 및 추진 필요
 -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정부 간 협력 필요
- 국제정치적 위험요인과 관련이 적은 Low-tech 및 mid-tech 분야에서의 전략적 대중 협력 확대 추진 필요
 - IPEF 및 CHIP4동맹 등에서 규정하는 첨단산업기술제품군이 아닌 분야의 경우 한중 협력 및 교역 확대를 추진
 - 미국도 14nm 이상의 첨단 반도체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할 뿐 범용장비의 경우 수출허가
-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간 국민감정 관리 필요
 - 험한 또는 험중 정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동반자라는 인식공유가 양국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 필요

2. 기업차원의 대중 산업협력 전략

- 대중국 경쟁력 우위 확보 전략 필요
 - 기술격차 유지 외에도 혁신기술개발, 품질경쟁력 유지, 경영효율화, 인재확보 등 종합적인 기업관리가 필요
 - 중국기업으로의 인력유출이 기술유출이라는 인식으로 우수인력의 이직 관리 필요
 -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물리적 보안 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까지 관리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한국기업이 취약한 상황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안 마련
 - 원자재 및 부품소재 등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선 다변화 및 해외자원 개발에도 주목할 필요
- 해외 직접투자의 전략 마련
 - 아세안 국가 및 인도 등 중국과의 교역을 대체 및 보완할 수 있는 국가들과 중장기적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직접투자 전략이 필요
 - 우리 기업의 공급망에 현지 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win-win 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고 우리 산업과의 연관을 심화시킴으로써 안전한 지역 공급망을 구축

[부록] 대중국 무역의존도

< 업종별 대중 수출 비중 >

대중 수출 비중 (%)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제조업	7.62	10.71	21.72	25.03	26.01	25.83	25.15
고위기술산업군	1.45	3.87	24.32	34.50	40.37	34.16	34.06
의약	5.22	11.18	12.05	8.61	7.54	4.69	4.28
반도체	0.52	3.23	27.12	34.33	44.59	40.64	39.68
디스플레이	3.11	2.02	32.86	49.50	53.27	37.36	35.23
컴퓨터	0.66	3.36	32.59	29.64	43.85	14.18	11.84
통신기기	2.02	1.52	1.98	2.20	6.80	4.14	27.91
가전	3.11	7.69	13.51	14.31	12.53	19.83	17.42
정밀기기	3.53	7.52	64.73	40.02	36.50	41.25	42.54
전자	0.38	0.85	32.58	59.26	31.50	14.85	9.70
항공	0.02	0.30	3.79	2.85	1.71	1.77	3.03
중고위기술산업군	12.51	15.88	22.99	27.62	25.66	23.67	23.50
석유화학	28.48	33.39	44.68	45.41	42.91	40.61	38.88
정밀화학	15.30	20.53	28.24	28.78	35.35	37.62	40.87
기타 전자부품	5.47	27.23	31.69	47.67	38.23	30.27	30.60
전기기기	13.27	18.47	25.48	35.53	43.19	22.02	20.80
일반목적기계	7.92	6.01	13.51	23.71	17.16	19.66	18.93
특수목적기계	20.09	20.19	26.18	31.87	27.30	34.14	29.65
자동차	2.48	1.46	9.95	11.27	10.74	3.05	2.81
철도	16.24	0.04	1.43	2.32	1.00	0.34	0.62
기타 수송장비	6.25	0.47	1.95	2.78	9.91	4.20	5.10
중저위기술산업군	6.77	11.76	16.42	13.11	11.94	18.34	15.99
석유정제	19.41	19.78	21.42	22.32	14.74	27.49	18.56
고무	1.46	1.74	3.20	4.68	5.69	6.95	6.84
플라스틱	10.16	14.26	21.91	30.26	29.99	26.94	27.12
유리	8.41	19.33	15.90	14.17	24.42	32.79	39.33
세라믹	6.93	5.62	18.26	23.24	30.72	30.34	32.32
시멘트	0.61	1.33	0.88	1.34	1.20	23.84	25.52
기타 비금속 광물	1.29	9.79	24.13	23.56	19.74	22.16	25.03
철강	10.77	18.66	27.68	16.03	14.01	17.05	12.21
비철금속	4.30	11.28	34.89	24.49	21.59	24.10	26.87
주조	7.36	8.61	21.50	17.53	5.96	38.41	30.28
조립금속	6.36	7.96	12.79	15.50	12.89	14.36	14.33
조선	0.04	0.07	0.21	0.30	1.17	0.21	0.20
저위기술산업군	11.09	15.62	20.15	18.67	16.12	15.59	15.76
음식료	3.47	5.25	10.18	14.64	19.63	18.69	21.16
담배	33.04	0.81	2.58	1.48	0.98	1.89	2.14
섬유	13.54	18.29	22.84	19.74	14.80	13.18	10.55
의류	1.27	3.23	13.52	20.08	18.43	20.07	25.32
가죽·신발	19.04	38.85	44.76	36.32	25.42	23.30	23.34
목재	32.48	42.28	18.18	15.09	6.59	15.19	14.67
제지	23.98	20.34	15.54	17.39	9.56	17.65	18.03
인쇄	5.07	3.92	5.10	2.51	3.59	4.05	9.58
가구	2.90	3.06	40.00	37.66	33.62	23.03	22.55
기타 제조업	5.83	9.31	12.65	9.99	13.71	10.51	7.48

- 출처: 주요산업동향지표(2022년 6월) 통권41호, 산업연구원

< 업종별 대중 수입 비중 >

대중 수입 비중 (%)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제조업	5.55	8.52	17.41	21.73	25.52	27.84	27.79
고위기술산업군	2.12	6.20	17.77	29.98	35.44	36.72	37.83
의약	6.95	7.03	7.57	9.76	9.62	9.99	9.55
반도체	1.26	4.55	12.33	24.23	30.33	38.86	39.62
디스플레이	4.11	37.31	42.80	54.93	63.67	33.37	36.00
컴퓨터	0.80	11.05	47.13	68.79	65.21	65.24	65.36
통신기기	0.83	3.17	23.37	51.22	72.55	65.36	62.13
가전	10.56	15.39	29.98	35.73	48.30	54.56	51.71
정밀기기	1.12	2.57	4.53	10.93	14.62	15.40	16.22
전자	5.50	8.37	41.36	60.99	51.29	84.43	87.96
항공	0.01	0.28	0.93	1.03	0.80	1.00	1.19
중고위기술산업군	2.26	6.36	12.49	17.59	20.27	24.58	26.99
석유화학	6.04	7.88	12.58	18.62	22.85	33.85	40.30
정밀화학	0.59	2.06	4.93	9.50	13.65	16.52	18.68
기타 전자부품	1.78	11.74	24.60	36.84	40.63	35.17	35.45
전기기기	5.79	19.79	31.37	40.98	32.19	38.46	40.10
일반목적기계	0.65	2.98	9.71	14.06	20.41	29.92	34.56
특수목적기계	0.22	0.53	2.34	4.31	8.39	11.71	8.51
자동차	0.73	3.41	12.50	23.12	17.47	16.72	18.52
철도	1.40	0.71	13.39	8.40	16.95	31.28	31.51
기타 수송장비	14.60	28.11	39.55	50.89	49.25	45.79	49.59
중저위기술산업군	7.47	7.07	16.11	15.88	19.46	20.54	18.36
석유정제	4.66	3.27	2.80	1.65	0.57	0.42	0.40
고무	0.89	6.14	10.03	12.03	18.96	19.53	17.97
플라스틱	2.31	5.26	11.55	13.30	23.93	30.56	34.60
유리	10.78	8.21	15.93	18.37	42.39	43.27	45.91
세라믹	4.05	9.62	39.31	51.58	52.48	51.46	52.06
시멘트	23.71	55.93	55.37	36.05	32.84	51.70	56.56
기타 비금속 광물	5.63	21.87	50.13	64.44	62.89	59.61	49.33
철강	19.20	14.84	28.06	30.09	48.96	40.15	45.17
비철금속	3.22	5.78	17.80	8.91	12.16	14.07	13.03
주조	9.33	15.43	26.01	13.01	13.45	11.48	9.16
조립금속	3.23	7.36	25.05	38.17	39.10	45.78	49.57
조선	0.07	5.34	16.45	43.58	22.89	58.54	31.28
저위기술산업군	14.42	21.14	31.48	30.91	28.43	26.45	25.60
음식료	8.78	15.15	18.61	17.12	13.92	13.18	12.07
담배	0.00	0.01	10.97	6.82	1.75	1.72	2.29
섬유	32.34	31.42	40.21	44.61	46.98	53.28	47.58
의류	29.73	67.04	77.46	66.54	42.62	32.04	34.06
가족·신발	14.60	18.54	40.21	43.14	37.06	26.55	27.50
목재	5.49	11.78	15.25	17.39	20.80	14.61	14.26
제지	0.59	2.07	5.82	9.90	13.12	18.56	18.11
인쇄	0.85	1.71	9.52	11.76	18.41	27.56	26.42
가구	5.97	14.34	64.26	59.59	65.09	67.64	69.81
기타 제조업	14.92	31.12	33.20	34.79	36.28	38.55	37.31

- 출처: 주요산업동향지표(2022년 6월) 통권41호, 산업연구원